

한국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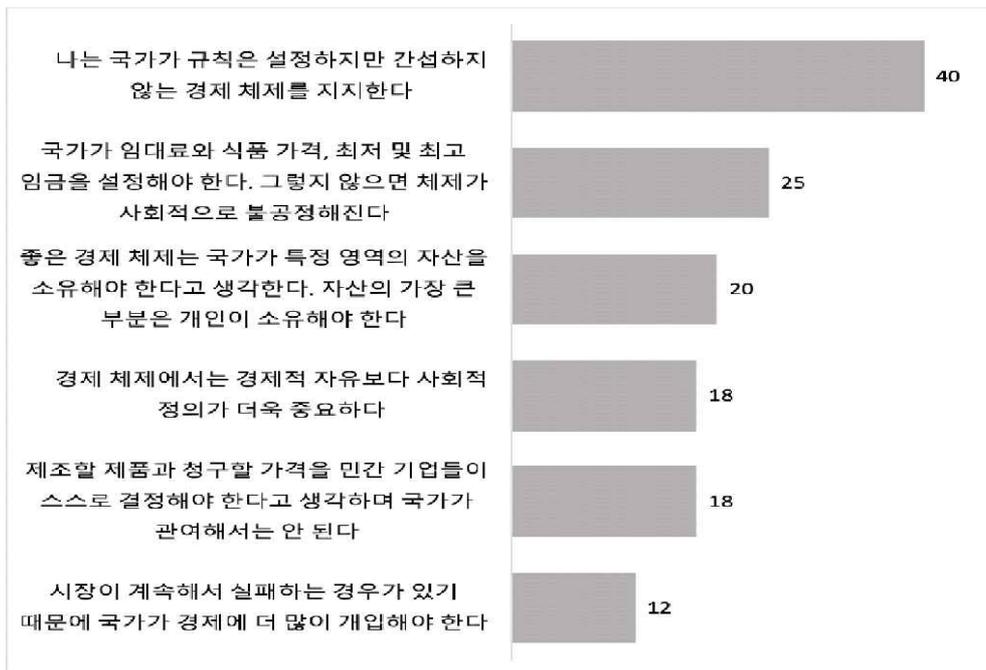
라이너 지텔만(Rainer Zitelmann)

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한국, 미국을 포함한 총 34개국에서 자본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가 이뤄졌다. 한국에서는 Ipsos MORI가 2021년 7월 30일과 8월 9일 사이에 999명의 대표 표본을 설문 조사했고 아래는 이에 따른 결과다.

■ 한국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태도

- 친국가(pro-state)와 친시장 진술문에 대한 조사 결과, 더 큰 정부 역할 지지하는 진술문들이 18%, 정부역할의 축소를 지지하는 친시장 진술문들이 26%의 찬성표를 얻었다.
- 긍정적 진술문의 평균을 부정적 진술문의 평균으로 나누면 1.42가 나오는데, 1.0보다 큰 계수는 친경제적, 1.0 미만의 계수는 반경제적(anti-economic) 의견이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
- 한국은 1.42의 계수로 친경제적(pro-economic) 자유 태도가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

좋은 경제 체제에 관한 여섯 개 진술문



주: 모든 자료는 응답자의 백분율로 되어 있다.

출처: Ipsos MORI survey 20-091774-3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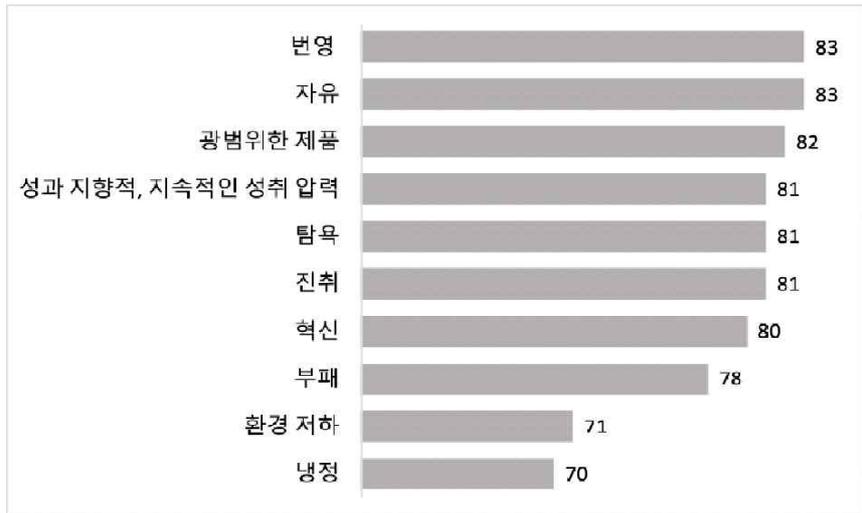
발행처 자유기업원
 발간일 2023년 6월 22일
 번역 황수연
 기획·문의 장현준 연구원 02-3774-5053, h7jang@cfe.org

발행인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
 편집자 장현준 자유기업원 연구원

■ 한국인들은 ‘자본주의’로 무엇을 연상하는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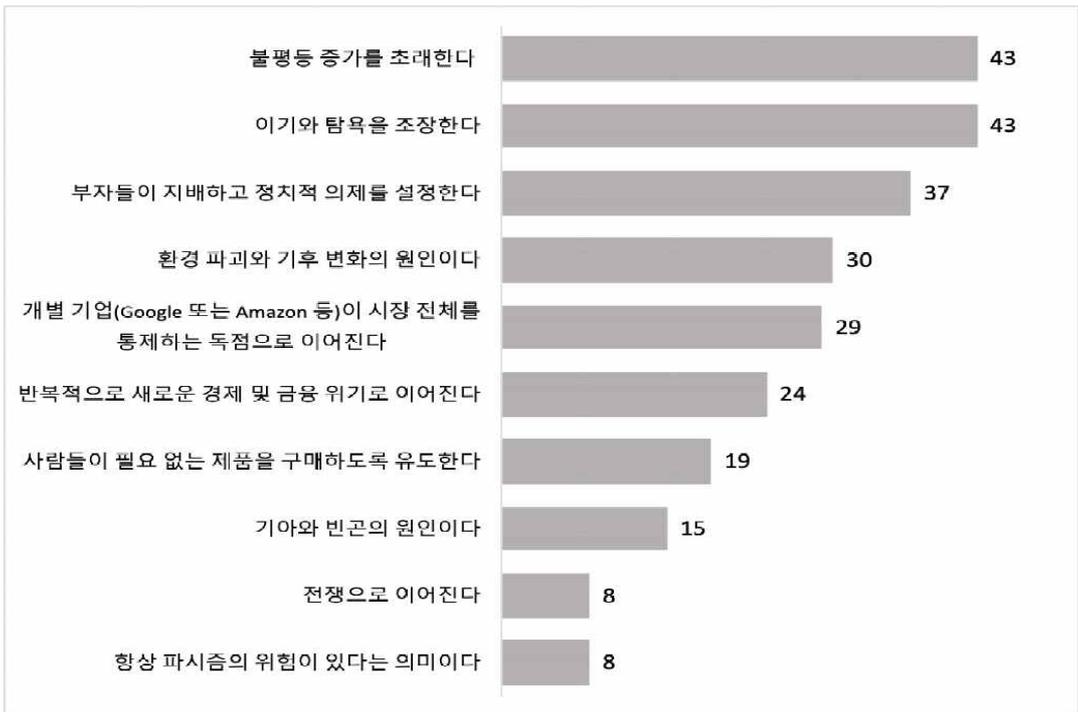
- 한국인 응답자들은 주로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긍정적인 것으로 연상한다는 결과.
- “탐욕”, “냉정”, “부패” 같은 부정적 용어들이 언급된 평균 백분율은 76%인 반면 “번영”, “진취”, “자유” 같은 긍정적 용어들은 각각 83%, 81%, 83% 만큼 언급된다.

‘자본주의’에 대한 연상



주: 모든 자료는 응답자의 백분율로 되어 있다.
출처: Ipsos MORI survey 20-091774-30

자본주의에 관한 진술들 - 10개 부정적 진술



주: 모든 자료는 응답자의 백분율로 되어 있다.
출처: Ipsos MORI survey 20-091774-30

■ ‘자본주의’에 관한 열여덟개 긍정적 및 부정적 진술문

- 긍정적 진술에 대한 동의는 평균 31%를 넘어서는 반면 부정적 진술에 대한 동의는 26%에 불과하다.
- 긍정적 진술의 백분율을 부정적 진술의 백분율로 나누면 1.19의 계수가 나오며 이는 친자본주의적 태도를 의미한다.
-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진술은 “자본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의미한다.”(49%)이며, 그 다음 각각 43%를 얻은 “자본주의는 불평등 증가를 초래한다”와 “자본주의는 이기와 탐욕을 조장한다”가 있으며 “자본주의는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다른 경제 체제보다는 낫다”는 의견이 42%이다.

자본주의에 관한 진술들 - 8개 긍정적 진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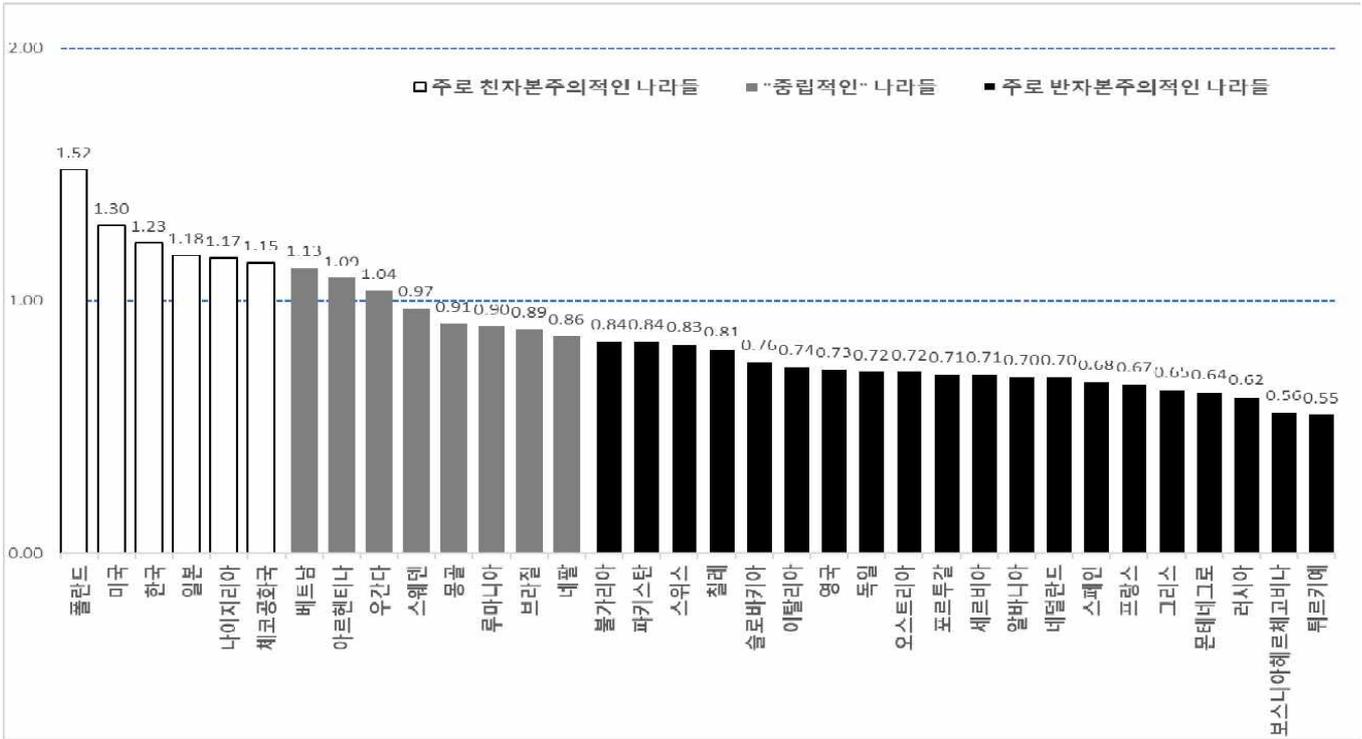
주: 모든 자료는 응답자의 백분율로 되어 있다.
출처: Ipsos MORI survey 20-091774-30

-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면, 자본주의는 기아와 빈곤을 줄이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통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했다.
- 하지만 한국 응답자의 단 24%만이 “자본주의는 여러 국가에서 일반인들의 상황을 개선시켰다”는 점을 인정했다.
- 1948년에 자본주의 한국과 공산주의 북한으로 나누어지기 전에,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.
- 자본주의는 한국에서 보통 사람들의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했지만, 사회주의 북한에서는 여전히 상황이 나빴다.
-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자본주의에 도움을 많이 받은 나라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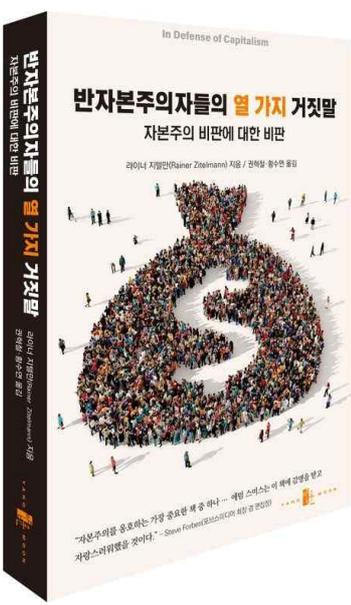
■ 한국에서의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는 다른 나라들에서의 태도와 어떻게 비교되는가?

- 위의 경제적 자유와 자본주의 질문에 대한 수치들이 결합될 때, 1.23의 계수가 나온다.
- 설문조사 결과, 한국(1.23)보다 더 친자본주의 경향을 보이는 나라는 폴란드(1.52)와 미국(1.30)이고 그 외 31개국은 자본주의에 대해 한국보다 덜 긍정적이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태도도 보인다.

34개국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에 관한 전반적인 계수



주: 계수가 낮을수록, 반자본주의 태도가 더 강하다
출처: Allensbach Institute survey 12038, Sant Maral Foundation, Ipsos MORI surveys 20-091774-30, 21-087515-07, 22-014242-04-03 and 22-087515-44, Indochina Research, FACTS Research & Analytics Pvt. Ltd. 그리고 Research World International Ltd.



저자 소개:
라이너 지텔만(Rainer Zitelmann)은 1957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태어났다. 역사학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베를린 자유대학교에 역사학 교수로 재직했다. 대형 출판사에서 편집장을 역임한 뒤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인 <디벨트>의 편집국장을 지냈다. 저서로는 《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》, 《무엇이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가》 외 다수가 있으며 유럽, 아시아, 북미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.

지텔만의 <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> 소개:
자본주의를 따르는 많은 사람도 기꺼이 경제 모델에 관해 토론하며 그런 모델들은 나름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. 하지만 이 책에서 지텔만은 모델에 관해 토론하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관해 토론하고 누가 옳는지 결정되는 것을 원한다. 이 책의 제1부에서는 자본주의에 반대해 항상 주장되는 것들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본다.